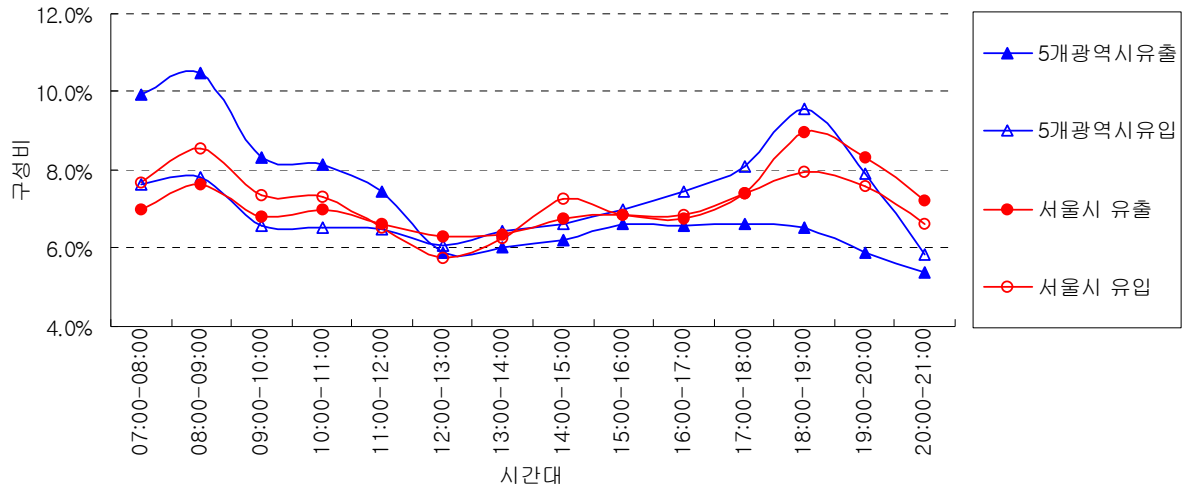
제 목 : 5개 광역시(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)의 유출입 통행실태 조사결과

(전국교통DB구축사업의 시행결과 조사자료)

○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과 함께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교통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중에 있는「전국교통DB구축사업」일환으로 2001년에 실시된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에 대한 유출입통행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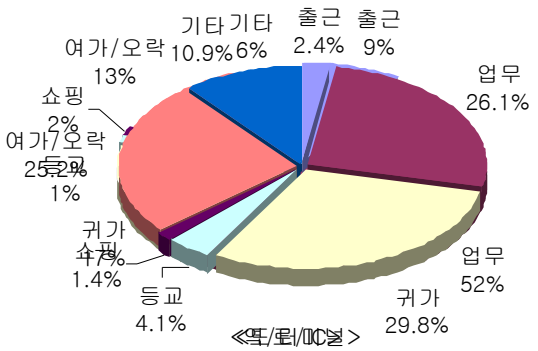
- 5개 광역시를 유출입하는 교통량은 오전 첨두시에 유출이 많고, 오후 첨두시에는 유입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서울의 경우와 반대되는 현상으로 특이할만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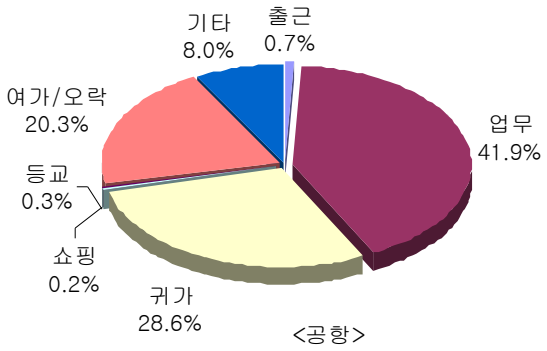
○ 유출입지점(도로/IC, 역/터미널, 공항)별 통행목적을 살펴보면,

- 도로/IC를 이용하여 유출입하는 차량이용자의 통행목적은 업무가 가장 많은 52%를 차지하며, 출근이 약 9%, 여가/오락이 약 13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

- 역/터미널에서는 업무, 귀가, 여가/오락을 위한 통행이 각각 25~30%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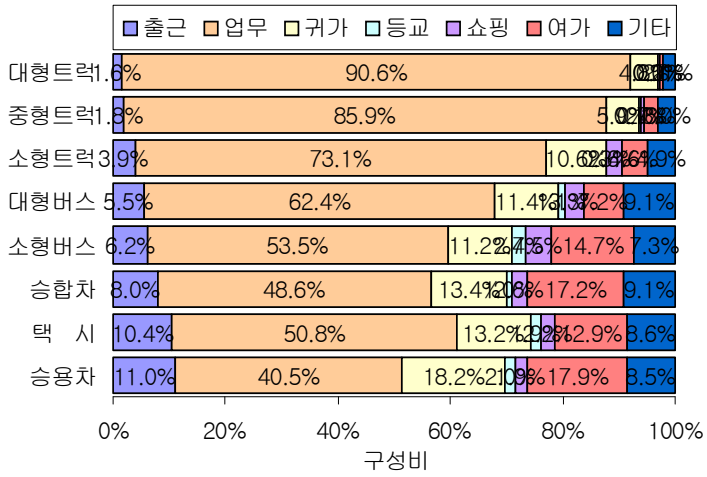


- 항공 이용자의 통행목적은 업무 42%, 귀가 29%, 여가/오락 20%의 순(順)을 보이는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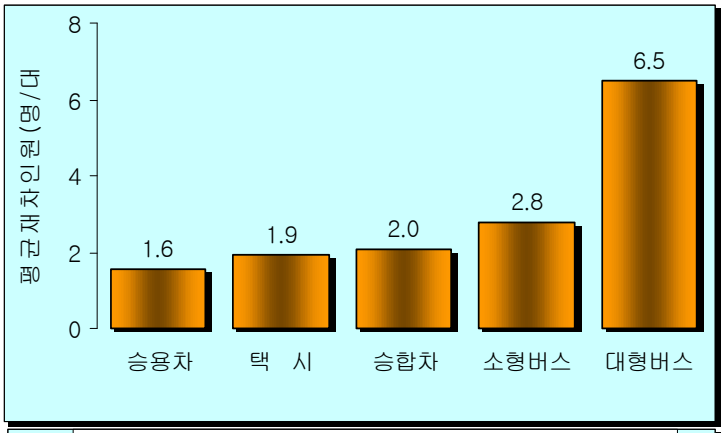
<공항>

○5개 광역시를 유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종별로 통행목적을 조사한 결과, 승용차/승합차의 약 50%는 업무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, 출근목적으로는 약 10%전후, 약 17% 정도는 여가/오락 목적으로 유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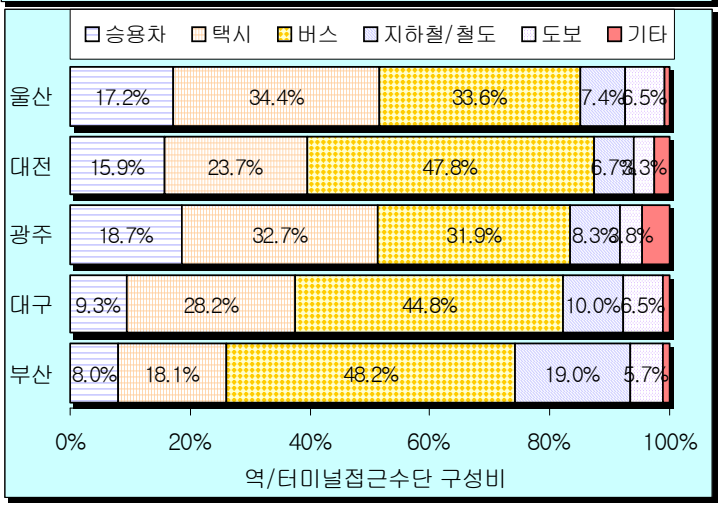
○또한, 5개 광역시를 유출입하는 차량의 차종별 탑승인원은, 승용차의 60%가 운전자 한 명만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차종별 평균승차인원은 승용차가 1.6명, 승합차(7~9인

승)의 경우도 2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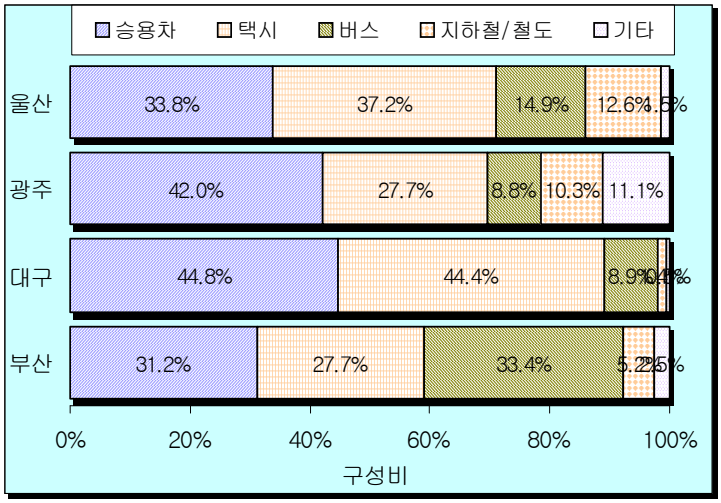


○ 역/터미널, 공항의 접근수단으로는,

- 역/터미널의 경우 버스, 택시, 승용차, 지하철/철도의 의 순(順)을 보이며, 특히 부산과 대구는 승용차와 택시의 구성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반면 버스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.



- 공항의 경우, 승용차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약 31%~45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, 다음으로 택시로서 약 27%~44%로 나타났으며, 버스는 9%~33%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

○ 금번 조사된 5개 광역시의 유출입통행실태자료는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아니라 교통계획 및 각종 계획에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분석·활용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
- 앞으로 이 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kotidb.re.kr)·CD 등을 통해 오는 연말부터 공개될 예정이다.